

2002년 한일월드컵



제17회 2002년 한일월드컵

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제축구연맹(FIFA)의 주관으로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한 월드컵대회입니다.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두 국가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, 아시아 대륙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월드컵입니다. 한국 도시 10개, 일본 도시 10개에서 월드컵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.

Be the Reds! 붉은 악마가 되어라!



붉은 악마는 12번째 선수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축구팀의 응원단입니다. 한국 국가대표 팀의 유니폼 색깔이기도 하며, 한국의 전통 문양인 태극 문양에서도 볼 수 있는 빨간색을 상징으로 하였습니다. 한국 축구를 응원하는 모든 사람을 '붉은 악마'라고 부릅니다.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길거리 응원을 주도하고 경기장에서는 애국가가 나올 때 초대형 태극기를 펼치고, 카드섹션을 펼쳤습니다.



4강전 독일, 꿈★은 이루어진다

월드컵 우승국은 국가대표 유니폼 엠블럼 위에 우승 횟수만큼 별을 새길 수 있습니다. 독일과의 4강전에서 월드컵 첫 우승(★) 바라며 했던 카드섹션 이벤트입니다.